

제사장 겸 율법학자인 에스라,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이들인 에스라들의 필요성

성경: 스 7:6, 11-12, 21, 8:21-23, 느 8:1-9, 11-13, 12:26

- I.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였다. 따라서 그는 율법 조문만을 아는 율법학자가 아니라 제사장 겸 율법학자였다 — 스 7:6, 11-12, 21, 느 8:1-2, 8-9, 11-12, 12:26.
- A. 제사장은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으로 적셔진 사람이다. 에스라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— 스 8:21-23.
 - B. 에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, 하나님과 하나이며,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하고,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이었다 — 스 7:6, 11-12, 21.
 - C. 제사장 겸 율법학자로서 에스라는 주님을 계속 접촉함으로써 주님과 하나 되었다 — 느 8:1-2, 8-9, 11-12, 12:26.
 - D. 에스라는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았다. 그가 말한 것은 모세가 이미 말한 것이었다 — 스 7:6, 느 8:14, 벤후 1:12.
 - E.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율법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얻으려고 율법학자인 에스라에게 모여들었다. 느헤미야기 8장 13절에서 ‘통찰력’은 내재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가리킨다.
- II.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에 속한 진리로 교육함으로 재조성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게 했다 — 느 8:1-3, 5-6, 8, 13-18.
- A.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이 땅에서 그분의 증거가 될 신성하게 조성된 한 백성,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성된 한 백성을 얻으시는 것이었다 — 사 49:6, 60:1-3, 골 3:16.
 - B. 포로 된 데에서 돌아온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제멋대로 행동했는데, 이것은 그들이 바빌론에서 태어나서 자라, 조성에 있어서 바빌론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.
 - 1. 바빌론의 요소가 그들 안으로 일해 넣어져 그들의 존재를 조성하고 있었다 — 숙 3:3-5.
 - 2. 그들은 조상의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이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성될 필요가 있었다 — 느 8:1-3, 5-6, 8, 13.
 - C.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부합하는 문화, 곧 하나님을 표현하는 문화 안으로 이끌려면, 그들을 가르치고 재조성하는 것이 필요했다. 이러한 문화에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— 느 8:8.
 - D.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재조성하는 일에 매우 유용한 사람이었는데, 이것은 그가 하늘에 속한 신성한 조성과 문화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고, 그를 통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— 느 8:1-2.
 - E. 에스라는 백성이 신성한 말씀 안의 하늘에 속한 진리로 재교육되고 재조성되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였다.
 - F. 하나님의 백성을 재조성하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,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었다 — 시 119:2, 9, 105, 130, 140.

1. 하나님의 백성을 재조성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넣음으로써 말씀으로 적셔지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— 골 3:16.
 2.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할 때,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요소와 함께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하신다.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재조성된다 — 딤후 3:16-17.
- G. 에스라의 사역을 통해 재조성된 결과로 이스라엘은 (예표상으로) 특별한 나라, 곧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고 분별되어 하나님을 표현하는 나라가 되었다 — 사 49:6, 60:1-3, 슥 4:2.
1. 포로 되어 있다가 돌아온 이들은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단체적으로 재조성되어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다.
 2. 그들은 하나님의 사상, 하나님의 견해, 하나님의 온 존재를 주입받았다. 이것에 의해 그들은 하나님의 재생산이 되었다.
 3. 이러한 방식의 신성한 재조성에 의해 모든 사람이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었다. 그 결과 그들은 신성한 특성을 표현하는 신성한 나라가 되었다 — 뵤전 2:9.

III.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에스라들, 곧 하나님을 접촉하고, 하나님으로 적셔지고, 하나님과 하나이고, 하나님과 연합되고, 하나님으로 충만되고,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제사장 겸 교사들이 필요하다. 바로 이러한 사람이 회복 안에서 교사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— 마 13:52, 고후 3:5-6, 뵤전 2:7, 딤후 1:11.

- A. 주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탄의 어둠에서 신성한 빛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— 막 6:6, 비교 행 26:18.
1. 사람은 죄에 빠짐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고, 그 결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으며, 이런 무지함의 결과는 어둠과 죽음이다 — 엡 4:17-18.
 2. 세상의 빛이신 주님은 큰 빛으로 오셔서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셨다 — 요 8:12, 마 4:12-16.
 3. 주님의 가르침은 빛의 말씀을 해방함으로, 어둠과 죽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게 했다 — 요 1:4.
- B. 가르침은 너울을 벗겨 주는 계시와 동일한 것이다 — 뵤전 2:7, 엡 3:3-4, 9.
1. 가르치는 것은 너울을 걷어 주는 것이다.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, 그들이 삼일 하나님에 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너울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.
 2. 우리가 교회 집회에서 무언가를 말할 때, 우리가 하는 말은 너울을 걷어 주는 것이어야 한다. 이것은 우리의 가르침이 계시를 제시하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— 뵤전 4:6.
 3. 오늘날의 에스라들은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하여 조성해 주는 수고를 해야 한다.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거, 곧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 — 느 8:1-8, 13, 딤후 2:2, 15, 뵤전 3:15.
- C. 회복에는 가장 높은 진리, 곧 지난 수 세기에 걸쳐 회복된 진리들의 완결인 진리가 있다 — 뵤전 2:4, 딤후 2:2, 15.
1. 우리가 반드시 채워야 할 가장 큰 필요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진리 안으로 이끌어 회복을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— 뵤전 2:4, 딤후 2:2, 15.

2. 우리는 성경에 있는 객관적인 진리들과 주관적인 진리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 — 눅 24:39, 고전 15:45하, 롬 8:34, 10, 골 3:1, 1:27.
 3.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는 단지 ‘가지들’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, ‘뿌리들’과 ‘줄기’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.
 4.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단계들과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결정화된 의미를 보아야 한다 — 요 1:14, 고전 15:45하, 엡 1:22-23, 4:4-6.
- D. 진리로 조성되는 것은 진리가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져 우리의 내재적인 존재, 곧 우리의 유기적인 조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— 요이 2.
1. 신성한 계시의 내재적인 요소가 반드시 우리의 존재 안으로 일해 넣어지고 조성되어야 한다 — 골 3:16.
 2. 일단 진리가 우리의 이해를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게 되며,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 진리를 간직함으로써 진리를 축적하게 된다 — 벧전 1:13, 벧후 1:15, 3:1.
 3. 진리가 우리의 기억 속으로 들어온 후에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자양분이 된다. 그럴 때 우리는 진리를 축적하게 되며 지속적으로 자양분을 공급받는다 — 골 3:16, 4, 딤펵 4:6.
- E.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신성한 계시로 훈련받아야 한다 — 딤펵 2:2, 15.
1. 성경 안에 있는 중요한 계시들은 거의 모두 위치만 니 형제님과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사역에서 다루어졌다. 우리는 이러한 순수하고 건강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, ‘독성이 있는 야생 박’을 모으는 데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— 왕하 4:38-41.
 2. 우리는 모두 성경 말씀의 내재적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《라이프 스타디》와 각주가 있는 <회복역 성경>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— 느 8:8, 13.